

제5강 - 포스트리얼리티 - 가상과 현실

(1교시)

◆ 트루먼쇼는 가상일까? 현실일까?

※ 학습목표

가상과 실제의 경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보여지는 삶이란 가상인 것일까?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왜 재미가 있을까? 영화에서 트루먼은 자신이 살던 공간(세트장)을 벗어나려 애를 쓰며, 자신의 진실한 삶을 찾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과연 그 곳을 벗어난 것이 진실한 삶일까? 우리 자신의 삶 또한 트루먼 쇼에서처럼 사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자. 옛날 아내를 위해 거울을 사온 남편에게 어디서 여자를 데려왔으며 화를 내고 거울을 던져버린 일화를 생각해 보면, 과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다. 그러나 거울을 비롯해 비디오카메라 등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기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내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실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나 자신을 어떻게 볼지와 관련이 깊은 것이다.

정보과학의 발달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우리가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더 이상 과학기술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놀라운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가상과 현실의 경계

이라크 전쟁은 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깨끗한 전쟁’으로 불린다. 무인 장치를 이용해 미군이 직접 전투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듯 무인 비행기, 무인 정찰기를 이용해 원격 조정을 하게 된다.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것은 실제인 것과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상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영화 <파이트 클럽>처럼 실재하는 삶과는 달리 그것과는 다른 현실을 추구하는 것 역시, 실제와 가상의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한 부자가 어느 날 길거리로 나와 거지행세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발로 차이기도 하며 단지 그것이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과연 현실과 가상의 공간 사이에 어디에 위치하는 것일까? 앞서 이야기한 트루먼 쇼에서처럼 트루먼에게 현실이라면 그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가장으로 느껴지는 것일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단지 재미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새롭게 갖게 된 기술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